

# 권 북한 중앙은행총재 김찬 선생. ①

김찬 선생은 1915년 11월 10일에 원동지방 연해주 배시예촌구역 라사농가촌 지식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향촌에 있는 공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22년 고학교를 마쳤었다. 당시 아버지는 그 공학교에서 교원노릇을 하였다. 김찬 선생은 1919년에 1인주 청년동맹에 가입하였으나, 최후 원동에 쏜베른 주권이 확고어 되자 <sup>그한때는</sup> 공산 청년회 ~~로 개칭되었다~~ ~~남아갔다~~ 1919년 - 1923년 기간은 원동의 극대성세가 아주 복잡할 때였다. 한편으로는 문스크와에 쏜베른 주권이 독립되자 국내전쟁이 가열하여 지면서 세묘노브 백계 ~~정권~~ 군대와 골차크 재라티 군대 패잔병들이 시비리야를 걸쳐 원동지방 연해주에 밀려 나오게 하므로 동해 바다와 조선 및 만주 ~~영토~~를 붙여 일본 최약준대라 기억 들어 원동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자기 권력을 강요하면서 이전에 조선의 애국자들과 의행대비 찬가자들 또는 삼일 독립반세 찬가자들도 붙잡아 서울에 실어다가 사형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간도 심오반 사건으로

2  
인하여 불쌍한 조상의 전살한 애국자들도 서울에 불쌍하게  
상황당하였다. 당시 원동에 살고 있던 조선 민족들은 어느  
편을 지지하면 좋겠는지 불간하게 여겨왔다. 조선사  
람들은 일제군대를 가장 큰 적수로 여기었으나 일제는  
이것을 알고 원동 지역에 각종 학교들을 열고 무료로 공부  
를 시킨다. <sup>그</sup>책값이나 <sup>의</sup>복의 전부를 무료로 하는 한편 <sup>의</sup>복이나  
~~복~~ <sup>의</sup>복은 병영들과 전문소들을 열고 약값이나 ~~복~~ <sup>의</sup>복이나  
전부다 무료로 하였다. 그 외에도 가장 어렵게 사는 농  
민들에게는 양곡을 대어, 농사일에 농사할 준비에 항  
조를 주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청년들은 일본 강점군은  
혈혈치 원수로 인정하고 독립군에 가담하여 싸우려  
나가는 한편 <sup>의</sup>복이 그들로 입은 날 어린 청년들은 러시  
아 ~~복~~ <sup>의</sup>복 군대에 방조를 주었으며, 비밀리에 <sup>의</sup>복사업,  
노베트 주권 수립에 대한 준비사업에 참가하면서  
집을 떠나 독립군들을 찾아 다니었다. 1922년에  
일본 강점군을 원동지역에서 내몰라 백제 러시아  
군대도 몰려서 중국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sup>의</sup>복을 공  
청으로 재조직하고 그들에게 무장을 주어 자위대  
까지 조직하였다. 이때에 바로 김현세도 이 자위대

부대장

31

대원으로, 차후 부대장으로 1925년까지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농촌 소비조합의 선두에서 소비조합의  
원으로, 소비조합의 책임비서를 맡았다.

1925년에는 군당과 군인민위원회 임의로 김원씨를 비롯  
해서 구역 소비조합까지 지구 신용조합 동지회를 조직해 하였  
으며 다음 이 동지회를 골초로 개편되었다. 1926년에는  
해방시 소비조합 공청회 위원으로 선거되어, 군공청 등 행정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1927년에 권연맹 공산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  
으며 1931년 5월에 정당원으로 전당하였다.

1928년 9월에 우라지쉬스도크 농민당 파견에 따라  
모스크와 중앙 은행 재정 대학에 입학하여 그를  
1932년에 졸업하고, 1937년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  
까지 조선 은행 해방시 소비조합 지부 은행장으로 일하였다.

김원 선생은 1937년 조선인 강제이주 시기에  
우르베코스한 규칸드시에 도착하여 시 상업부 재  
정 계획과장으로 일하면서 차사르강의 상업대학  
경제-계획 학부를 ~~수료하고~~ 농신학을 수료하고 1942  
년에 마르케란 시 상업부장으로 선거되어 일하시었으며

1943년 봄에는 <sup>4</sup>바르셀론 시장위원회 제2차에서  
다음 1944년 봄에 1945년 8월까지도 페르가나루  
당 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지내시다가 군사동원부의  
명령에 따라 소련군 제25군단에 속하여 조선  
해방전에 참가하였다.

북한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초기에는 주로 재정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북한 중앙은행 사업을 통해 <sup>인민적</sup>외국에  
전체 북한 화폐개혁을 실시 하였으며, 제1차에 1944  
년으로, 제2차에 1949년으로 하였다. 다음 소련을 중심  
으로 사회주의 경영 경제 <sup>조직</sup>위원회가 모호하여 조직  
원리 관리를 하여 그에 따르는 각종 조직사업을 지도하면서

재정경제 분야의 직능에서 일하시다가 조선동맹쌍맹

이 개시되자 제2군단 군사위원으로 ~~출원~~ 출원, 양구  
인제를 걸쳐 서울, 수원, 개성까지 나가시었다가 전후  
에서 중앙은행인 보신코바 제2외과 병원의 <sup>의사</sup>까지  
촉용 되어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다음 인민군

제에서 제대 되어 다시 재정은행 사업에 복귀  
하게 되었으며 그는 소련에 귀환할 때까지 계속  
북한 중앙은행 총재로 전설하게 사업하시었다

김한 선생이 북한에서 추방된 원인은 사업에서 과  
무를 범하여서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하에서 사업은

그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아무리 충실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도동당~~ ~~볼드~~들은 그 내용을 전부 뒤돌려서 처방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sup>도 있는</sup> 것이요, 또 필요할 때에는 누구든지 죽일<sup>도 있는</sup> 것이다. 이것이 소위 불법천지로 인간들에게 내일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6년이 되자 한반도의 동족상쟁은 삼팔선을 쟁취하고 군사정전 판판위원회를 설치<sup>지법역 3년이</sup> ~~한~~ ~~후~~ ~~로 ~~인~~ ~~하~~ ~~리~~ ~~가~~ ~~는~~ ~~나~~ ~~는~~ 이 삼팔선이 어느 때에 문혀지고 통일될지 모르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하류속히 또 다시 전쟁방식으로 무장통일을 하려고 이를 갖고 있는 형편에서 김원선생은 김일성의 이 같은 배항의 배악은 고려한이 없이 제일 항공 방사기 사단에서 비행사로 복무하는 자기 아들 비행중대장, 동족상쟁에 방사기 비행사를 참가한 전투정찰자 김계우를 기를 송환하여 ~~공정위원회를~~ 6.25 전까지 공부하던 레닌 그라드 건설대학에서 4학년에서 재학케 하여 <sup>김일성에게</sup> 알라<sup>고</sup> ~~사정~~ 하였다. 제1 항공 방사기 사단은 총인원 백여명이 되는 비행사 40여 명과 소련 유학생들로 조직되어 연바 그룹에서 사납잡이 사냥검도가 전 5 행되자 반당공화분자 누명을 쓰고 처단된 간부~~

또 김찬이들과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들의 지식들과 ~~성격~~ 전복나 제대 김기환였기때 (6)  
문에 (이승엽의 아들을 비롯한 남한, 평안도 간부들의  
자식, 친척 관계자들) 전쟁 경험을 가진 비행사들은 불리 50%  
나은 기한은 신임보충 병들이었다. 특별히 이런 환경  
에서 김찬의 아들을 재교육하려는 소원으로 불변 다년  
전후경험소유자 비행사 전부를 소원으로 받아야 되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 김일성은 어떤 좋은 줄로를 택하  
여 국가어로, 대개 인들에게로 <sup>유익하도록</sup> 해결할 수 있었으나  
특별 독재자 인민의 "아버지"는 김찬선생을 불허 내각회의  
에서 불쌍직한 인간으로 ~~평가~~ 장시간 모욕한 다음 매일  
당장 아들을 데리고 소련에 가라고 추방하였다. 그  
당시 김찬의 아들 게오르기는 평양 처녀학교 <sup>고려하는</sup> 졸업하여 살  
아 아이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sup>고려하는</sup> 조선평화으로서 소련  
에 갈수없게하였다.

1956년 말에 귀국한 김찬 선생은 모스크바를 경유  
중아시아 페르가나에 돌아오는 길목에 딸 아들에게  
오르기는 레닌그라드 전설대학에서 다시 수강케  
하고 직신을 페르가나 국은행 북지바이인으로 일  
병받아 일한다음 1958년에는 무르베코노정복의 과정  
에 의하여 레닌그라드 고급 재정간부 연구원에서 일년  
간 편구생으로 계신다음 1960년 불어 국가 계획의

원희 재정부장의 직책에서 1975년까지 복무하시다가 70주년  
진급을 <sup>최종</sup> 큰 공훈 원급생으로 은퇴하시였다.

김찬성선생에게, 누구나 그 선생을 아시는 이들은 전부다 존경  
과 용어를 돌리였다. 특히나, 김찬성생의 아주러니  
말과 의하일름나도 언제나 인자하고 따듯하게  
사람을 대치하여준 덕으로 그 아주러니는 변명이  
"구조 지지<sup>합과</sup>라고, 김찬성생은 "지<sup>바사</sup>지<sup>바사</sup>라고 보충구두분  
을 아는 사람들은 불러왔던바, 이것은 그 두분에게  
최대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여서 칭하는 "아주러니",  
"아주러니"라는 말이였다. 이 두분은 자기 집에 들  
어 온 손님들을 어느때나 인자한 낯으로 아주후  
하게 접대하였던바 그것은 어떤 값진 또 고귀한  
음식으로 대하여서가 아니라 보충음식도 아주따뜻  
하게 데끼여 끈박하게 먹도록 시중하여주시까  
그 집에는 어느때나 손님이 없을때까지 없었다. 이  
따슈켄트에서 사는 조실 사람치고 북한에 가서 일하  
다가 도라온 사람들중 김찬성생 아주러니 따듯  
한 대접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김찬성생은  
여러 친구들의 따듯한 존경을 받으면서 원급생

활을 하시다가 1992년 7월 28일에, <sup>(8)</sup>부세  
일기로 하시고 별세하시었다. 선생은 돌아가시는 날  
까지도 조국통일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시면서  
"조국통일 구국전선" 상임위원으로 계시었다.

김찬 선생의 딸 김 열라.